

진구x최시원x장기하x송호준 “요트 항해 쾌감”

MBC 새 예능 ‘요트원정대’ 제작발표회

“멀미 가장 힘들어”...오는 17일 첫 방송

“요트는 절대 호사스러운 것이 아니다.”(김승진 선장) “그간 바다 하면 낭만적인 로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가치 중립적인 대상으로 바뀌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강한 존재”(장기하)

대한민국 최초 무기함 무원조로 홀로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과 함께 진구, 최시원, 장기하, 송호준 네 남자가 태평양으로 항해를 떠난 MBC예브리온 새 예능물 ‘요트원정대’가 포문을 열었다.

첫 요트 모험에 올랐던 네 남자는 각종 고생담을 쏟아내며 시청자들에게 오는 17일 오후 8시30분 첫 방송되는 ‘요트원정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진구는 12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진행된 ‘요트원정대’ 제작

발표회에서 “멀미가 가장 힘들었다. 매일 파도 높이가 달라서인지 적응했다 싶으면 또 다른 멀미가 이어졌다”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최시원은 “잠자리가 가장 불편했다. 눕는 순간 상태에서 마르질 않았다”며 “보송보송한 이불 속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냥 누워있고 싶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했다”고 말했다.

장기하는 “난 내가 평소에 모험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녀온 후 그림 생각이 바뀌었다”며 “모험을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다”고 웃었다.

그는 “대부분의 생활을 즐기지만 큰일을 화장실에서 보기 힘들어서 바깥에서 일을 봤다”며 “지금 생각하면 큰 추억이다. 난 그런 게 아니었다”고 폭로했다.

송호준은 “대부분의 생활을 즐기지만 큰일을 화장실에서 보기 힘들어서 바깥에서 일을 봤다”며 “지금 생각하면 큰 추억이다. 난 그런 게 아니었다”고 폭로했다.

화장실 얘기가 나오자 추가 폭로전이 이어졌다. 최시원은 “삼국지 도원결의처럼 우리끼리 화장실 부분을 결의했는데 재미있었던, 뜻깊은 추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기하는 “사실 도원결의라고 하기엔, 다같이 바다를 향해 시원하게 헤엄쳐가는 날이 있었는데 최시원은 못했단 게 공격했으며, 최시원은 “저는 사실 화장실을 잘 써서 그랬다. 여튼 (바다로 싸기) 시도는 했다”고 반박했다.

김승진 선장은 “바다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바다를 보



여주고 싶었다”며 “거대한 자연 환경에서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이후 행복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호준은 추후 다시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싶다는 심정이야. 그는 “사실 어제 요트 자격증

을 뒀다. 난 무조건 다시 갈 것”이라며 “진구, 최시원, 장기하와 함께 가고 싶다”고 웃었다.

그는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한다는 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최근 물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다들 힘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요트원정대’는 모험을 꿈꿨던 네 남자가 요트를 타고 태평양 항해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금껏 어떤 예능에서도 본 적 없는 낯선 그대로의 리얼 생존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트레저, 첫싱글 선주문 20만장↑

올해 신인 초동 최고



YG엔터테인먼트 신인그룹 ‘트레저(TREASURE)’의 첫싱글 선주문량이 20만 장을 넘어 서며 올해 데뷔한 K팝 아티스트 최고 초동 기록에 한 발짝 다가섰다.

12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레저의 첫싱글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원(THE FIRST STEP : CHAPTER ONE)’ 선주문량이 이날 오전 11시 기준 20만 장 이상으로 집계됐다.

피지컬 음반 정식 발매인 13일,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예약 판매량이 앞치러워치락 경쟁적으로 늘고 있어 선주문 수치는 더욱

키질 것이라고 YG는 예상했다. YG는 “이러한 추세라면 트레저의 데뷔 앨범 초동 기록은 YG 역대 신인 최대 규모가 확실하다. 아울러 트레저는 2020년 K팝 신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YG 관계자는 “트레저의 첫싱글 추가 주문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현재 총 25만장을 제작 진행 중”이라며 “데뷔 후 일본에서의 반응이 더욱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트레저의 앨범은 앞서 예약판매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선주문량 10만 장, 나흘 만에 15만 장을 넘어 서며 예사롭지 않은 인기 돌

풍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음원 공개와 함께 트레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일본 출신 멤버들(요시·마시호·아사히·하루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현지 앨범 선주문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레저의 타이틀곡 ‘보이’는 일본 최대 음원사이트 라인뮤직 톱100 차트, 라쿠텐 뮤직 실시간 종합 랭킹, AWA 급상승 차트 1위를 휩쓸었고 일본 6대 스포츠지는 물론 지상파 후지TV ‘메자마시 도요비’와 TBS ‘하야도키’ 등이 이들의 데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또한 트레저는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QQ뮤직의 5대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데뷔 직후 24시간이 채 안된 시점에 QQ뮤직 탐라이징차트 1위를 기록했다. 덕분에 “YG 초대박 괴물신인의 탄생” 등의 헤드라인 기사는 바이두닷컴, 시나닷컴, 소후닷컴, 텡신왕, 인민왕 등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를 장식했다.

트레저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그룹이다. 데뷔 동시에 일본과 중국 의 음원 공개 첫날 19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 서도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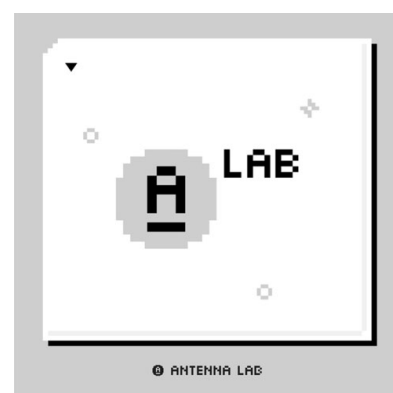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트레저는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또 빌보드 ‘이머징 아티스트’ 차트에서는 3주 연속 진입에 성공했다.

트레저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데뷔 이후 약 40만명 증가해 현재 179만명을 넘어섰다. ‘보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26시간 만에 1000만뷰를 돌파한 뒤 꾸준한 상승세다.

‘보이’를 비롯한 음원과 인스트루멘탈 버전이 포함된 피지컬 음반은 YG셀렉트를 비롯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유희열의 안테나, 온라인 음악공유 공간 오픈

오는 18일 첫 공개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이 중심이 된 안테나가 온라인 창작 공간 ‘안테나 랩(Antenna LAB)’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안테나는 전일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테나 랩’ 오픈을 알리는 이미지를 공개했다. 실험실(Laboratory)이라는 의미를 담은 ‘안테나 랩’은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통해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공유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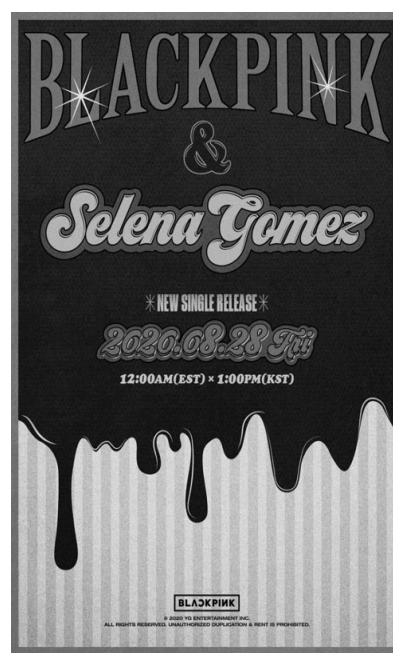
공개되는 작업물은 초기 스케치부터 후반 작업을 거치지 않은 데모, 비사이드 컷(Bside cut),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하는 장르 등의 무한한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기존의 음원 제작 프로세스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음악과 함께 공개되는 사진과 영상 등도 아티스트가 직접 준비한다. 작업물들은 오는 18일 첫 공개되며, 안테나 공식 유튜브 채널 내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안테나는 그간 ‘좋은 사람, 좋은 음악’을 모토로 삼아왔다. 유희열 외에 정재형, 루시드플, 페퍼톤스, 샘김, 정승환, 박새별, 권진아, 이진아, 윤석철트리오, 차이(chai) 등이 소속돼 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릴레이 라이브 스트리밍 ‘에브리싱 이즈 오케이, 워드 안테나(Everything Is OK, with Antenna)’를 열기도 했다.

블랙핑크, 새 싱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

오는 28일 세계 동시 발매



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미국 팝스타 겸 배우 셀레나 고메즈(Selena Gomez)와 협업한다.

12일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와 고메즈가 협업한 음원이 오는 28일

세계 동시 발매된다. 미국 동부 기준으로는 이날 자정,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다.

고메즈는 미국 디즈니채널이 발굴한 10대들의 워너비에서 글로벌 톱스타로 성장한 가수 겸 배우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약 1억 8000만명에 달하는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아닌 패션·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를 이끄는 핫한 스타다.

무엇보다 뮤지션으로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

2009년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해 꾸준히 성장해온 그녀는 2014년 라디오 디즈니 뮤직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 2016년 아메리칸 뮤직어워드 최우수 여자가수상 등을 받는 등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싱글 ‘로스 유 투 러브 미(Lose You to Love Me)’를 통해 데뷔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YG 관계자는 “서로의 오랜 팬으로서 음악적 교감을 나눈 두 아티스트가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블랙핑크는 셀레나 고메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팬들에게 곧 이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음에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랙핑크는 최근 팝스타와 연이어서 협업하며 세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의 협업곡 ‘사워 캔디(Sour Candy)’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서 K팝 걸 그룹 최고 성적을 거뒀었다.

앞서 2018년에는 두아 리파(Dua Lipa)의 키스 앤드 메이크업(Kiss and Make Up)을 피쳐링하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36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블랙핑크는 단독으로도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블랙핑크가 지난 6월 공개한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차트 2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와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각각 20위와 3위를 기록해 K팝 걸 그룹 역사를 새로 썼다.

원더나인 출신 용하X준서, 김요한 속한 ‘위아이’ 합류

자체 리얼리티 ‘위인전’ 촬영 마쳐

그룹 원더나인(1THE9) 출신 용하, 준서가 보이그룹 위아이(WEI)로 새 출발한다.

12일 위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용하, 김준서가 보이그룹 위아이(WEI) 합류를 확정 짓고, 최근 자체 리얼리티 ‘위인전’ 촬영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용하, 준서는 MBC 오디션 프로

그램 ‘언더 나인틴’을 통해 탄생된 보이그룹 원더나인(1THE9) 출신이다. 지난 5월 마지막 앨범 ‘굿바이 원더나인(Good Bye 1THE9)’ 발매를 끝으로 공식 활동이 종료됐다.

용하, 준서는 장대현, 김동한, 김요한, 강석화로 구성된 위아이(WEI)에 합류해 6인조 완전체 데뷔를 공식화했다.

위아이는 위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론칭하는 보이그룹이다. 지난 7월 공식 SNS 계정 및 팬카페 오픈, 오피셜 로고를 공개하며 반응을 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용하, 준서가 합류하고 더욱 풍성해진 위아이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며 “첫 촬영부터 끈끈한 우정과 팀워크를 보여준 위아이의 리얼리티 ‘위인전’ 또한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빈, 새 드라마 ‘스타트업’ 캐스팅

배우 유수빈이 tvN 새 드라마 ‘스타트업’ 캐스팅을 확정지었다.

오는 10월 방송 예정인 tvN 새 주말극 ‘스타트업’은 한국의 실리콘 벨리에서 성공을 꿈꾸며 스

타트업에 뛰어드는 청춘들의 시작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다.

배수지, 남주혁, 김선호, 강하나, 서이숙 등이 출연한다. 극중 유수빈은 도산(남주혁 분)과 같

은 학과, 동아리 출신의 친구로 삼산택의 시작한 뜨개질 동호회 ‘패턴’을 만든 장본인 ‘이철산’역을 맡았다. 모태솔로 탈출을 외치며 만들었던 뜨개질 동호회 ‘패턴’에 여학우의 가입이 아닌, 엉뚱하게 도산이 가입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